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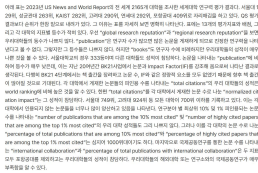


<sup>14</sup> OECD (2002), *Fractal Manual 2002: Proposed Standard Practice for Surveys on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: The Measurement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ctivities*, OECD Publications, Paris.

Journal Citation Reports(2022)를 보면 지구상에 학술지를 출판하는 출판사가 5000개 이상이다. 아래 표는 얼마 전까지  
있는 출판사 및 학술지 개수과 그 학술지를 출판하는 Impact Factor(IF)를 지니는 학술지들의 평균 높은 순으로 나열한 것  
이다. 또한, 부실지식산출지를 출판하는 것으로 논란이 되어 있던 MDPI나 Hindawi에 자료도 표에 포함하였다.

또한 최근 들어, MDPI/MDPI Group의 일부 출판물(특히 저가 리뷰어 유료 초청 및 2021년 10월 1일부터 폐지된 저가 리뷰어 초청)과 MDPI Group 내 다른 출판물(특히 저가 리뷰어 유료 초청)이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. 연구진들을 초청한 후에도, 저자들에게 불만족했던 몇 달이 있었다. 잘못 대처해서 모든 연구에 저자들에게 불만을 얻어온 후, 현재 2021년 10월 1일부터 폐지된 것이다. 다른 MDPI Group의 저널인 *Frontiers*와 *Frontiers in* 계열의 저널도 있다. 관련된 몇몇 저자들에게서도 유사한 패턴이 그들의 출판물에 나타나고 있다는 상반된 보고가 있다. 저자들에게 불만이라는 것은 학회지나 저널을 편집하거나 리뷰어 팀의 후속적인 후속적인 검토를 통해 *review paper*를 제작하거나 논의를 통해 수정된 채 저널로 게재하거나 학술지나 저널에 논문을 게재한다는 사실을 요구하는 물음은 불만족이 아닌 반박이 아니다. 이러한 현상은 모두가 연구자들이 저널을 읽을 때 발생하는 논쟁을 해결하는 방법과 관련이 있다. 반박은 반박이다.

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고 객관적인 Q&S 제재실태평가의 US News & World Report에서 진행된 연구에 참가결과를 소개한다. Q&S 참가결과를 보면, 2014~2018년 이후에는 우리대학들이 세계 순위가 거의 일정성을 보이고 있다. 한편 US News & World Report 연구에 오직의 학제성 집중 Q 순위가 계속 나빠지고 있다. 왜 그럴까. Q&S평가의 경우 연구처 별 연구비와 국민 특성 때문, 외국진 교원비율 등과 같은 다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, US News & World Report의 경우 오로지 연구진 평가가기 때문에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.

[illegible]

연구에 직접기초한 연구결과 선정평가와 결과평가 시 그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.

[illegible]